

사람문제에서 벗어나자
내가 틀렸다.
방향을 잘못 잡았다.
그렇게 태어난 것이 문제였다.

사람은 바꾸기 어렵다.
태어난 대로 사는 것이다.

소똥구리도
탁란하는 뱀구기도
군대개미집에 알을 낳아 기르는 벌도
거미집에 기생하는 애벌레도
다 태어난 대로 사는 것이다.

그것을 바꿀 수 있단 말인가?
안된다.
진화의 세계에선 그들 자신이 오랫동안 노력해서 바꿀 수 있겠지만
내가 그들을 그 무엇도 바꿀 수 없다.
그런데도 한평생 그런 생각만 하고 살았구나.
내가 틀렸다.
내가 방향을 잘못 잡았다.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자.

더구나 사람을 바꾼다는 생각은 아주 잘못된 것이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열광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았다.
그걸 몰랐다.

더구나 언론은 이재명을 악마로 만들었다.

그것이 먹혀들었다.

얕박한 신천지나 영생교 JMS 전도관들의 단체가 먹고
그들이 젊은이들의 파를 빨아먹어도 모르는체 하는 정부나 기관들
손에 똥을 묻히기 싫어하는 것이고
신천지등은 그렇게 모은 돈과 인원으로 국민의집을 밀고 윤석열에
게 은혜를 갚고
한동훈은 독립투사로 포장되어 정권의 개들이라고 뽀뽀하게 내뱉고

이낙연 신경민 박광온 박준.. 김동철 이 손에 장을 지진다는 녀
석들
손가락을 자르고 싶어할 것이라던 안철수의 변신
너무나 이상하고 보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빠꾸기나 개미집에 탁란하는 벌이나 거미집에 탁란하는 녀석들
다 비슷한 종자들이다.

그럼 나도 비슷한 종자인가?

아님 내가 그들을 바꿀 수 있는가?
어림없는 일
쓸데없는 일에 온생을 바친 꼴이다.

도산이고

예수교

부처고

아 필요 없다.

이명박에 줄대고 도박하고 여자짓하던 자승이나
여의도 순복음 교회 조용기의 여자짓이나
영등포교회 원로목사의 유성호텔 투숙이나

강동구 교회의 교회세습도 이명박 박근혜와 유착된 결과 아닌가?

그래!

정치권과 연결되어서 나쁜짓을 해야 제대로 사는 듯

유병우가 그랬고

최순실이 그랬고

수많은 한나라당 새누리당의 인사들이 그랬다.

그들을 미워만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었다.

나머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세몽하면 될 줄 알았지만

어림도 없는 일이었다

하긴 1600만표를 얻은 이재명 후보

24만표로 떨어졌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호응하고

제대로 된 세상을 원했지만

24만이 더 많아 다시금 윤석열 같은 인간들의 세상이 되었다.

SKY 출신으로 대변되는 기득권들의 이재명 무시가 문제였고

정권을 잡지못한 이낙연을 비롯한 추종자들이 더 큰 문제였지만

결국은 각자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자기이익 이기심이 더 큰 문제 같다.

그것이 나쁘다고 생각한 것이 잘못이다.

사자와 사슴이 같이 놀 수는 없는데

그런 세상을 꿈꿔온 내가 잘못이다.

더 이상 내가 할 일이 없구나

조용하게 살자.

아니 내가 나서지는 못하지만
몸을 바쳐서 나서는 동지들을 도와주자.

한명숙 조국 최강욱 등을 제거하고
검찰공화국을 만드는 꼴을 보지 않았었는가?
무서운 세상
난 용기가 없지만
용기있는 이들을 도우며 살자.

특별히 욕기가 많은 내부고발자들을 돕자.
장용진 김용민 등을 돕자
그들의 노력에 깊은 박수를 보내자.
고맙다.

나의 삶은
나의 목표는 여기까지이다.

그것이 내 능력의 한계이다.

그동안 헛된 것이었지만
그것을 노력해온 나에게도 박수를 보낸다.
비록 잘못된 목표 설정을 하고
고민과 고민을 거듭하며 살아왔지만
내 삶 자체를 부정하진 않으리라.
나름 고생하고 잘했다.
비록 실패한 삶이지만...

그래도 나와 같이 살려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잘못된 목표설정이었다는 것을 알려 줄 수 있으리라.
그것으로 만족하자.

이제 더 이상 사람으로 피곤하지 말자.

태극기 부대의 고정석 교장 출신
온갖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이룬 강수한의 오만한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주장만을 하는 안정자 김영대
이기주의의 극단적이고 신천지에 빠진 배형용
여호와의 증인에 심취되어 자기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이형주
끊임없이 자기의 생각만을 주장하는 이송호 교수란 자
자기주장을 앞세우고 남의 의견을 듣지 않고 즐고 있는 이석희와
유종렬
이야기를 반복하며 주도하려는 반재철류의 무리들
난 싫다.

이젠 조용히 살고 싶다
남의 의견을 경청하길 원하는 나와 같은 사람이 드물구나.
남의 사정을 이해하고 도와주려는 사람들이 적구나.
자기의 살길만을 생각하고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아하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었구나
타고난 것이었구나
소똥구리나 뺨꾸기처럼 탁란을 하는 이기주의적 자세
난 편하게 자손을 번식하고
졸라게 고생하며 키워봤자 자기를 떠나버리고
자기 새끼조차 죽여버리는 뺨꾸기의 새끼처럼...

그렇게 당하고 살지는 말자.

내 꿈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당하지는 말자.

그렇게 당하지 말고 살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도우며 살자
그것이 나의 마지막 삶의 목표가 되었다.

최선을 다하자.

고생이 많구나.

안상구!!!

2022-03-30 방배동 집에서